국악관현악 흥겨운 무대 익산서 펼쳐진다

익산예술의전당 · 전북도립국악원, 25일 관현악단 순회공연 '국악콘서트 락' 개최

풍성한 국악관현악단의 신명나는 무대가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익산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은 전북도립국악원(원장 박현규)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관현악단 순회공연 '국악콘서트 락(樂)'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을 중심에 두고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작품들로 예술성과 대중성, 역동성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돼 이른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웅장한 국악관현악의 멋과 활력을 채워줄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성택 관현악단장의 지휘와 방송과 공연 무대를 통해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악인 박애리가 사회와 노래를 겸한다. 익산 출신 명창이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소리꾼 조통달,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52호 전라삼현승무 보유자 문정근, 도내 대표적인 타악 연주단체 동남풍 등 뛰어난 기량의 관현악단 협연자들이 함께해 공연의 맛과 깊이를 더한다.

풍성한 국악관현악단의 신명나는 무대가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첫 무대는 관현악 '말발굽 소리'로 시작한다. 말(馬)에 대한 몽골인들의 열정적 마음, 영광, 행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곡들로 구성되어 독특하고 다양한 리듬과 생동감 있는 연주로 공연의 문을 연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해금 협주곡 '추상'을 선보인다. 역동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국악관현악 선율과 박진감 넘치는 타악 반주, 해금의 섬세한 감정표현을 격정적으로 연주한다. 해금 협연에는 관현악단 장윤미 단원이 무대에 오른다.

세 번째 무대는 관현악 '세계명곡기행'이다.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세계명곡을 주제로 한 음악들을 다양한 국악기로 편곡해 국악기로 듣는 클래식의 색다른 감성을 느껴 볼 수 있다.

이어 네 번째 무대는 올해 관현악단 신춘음악회 위촉곡 춤산조와 관현악을 위한 3중 협주곡 '舞散響(무산향)'이다. 원장현 대금 명인의 구성으로 짜인 독주곡 춤산조를 국악오케스트라와 함께 대금, 소아쟁, 가야금의 3중 협주곡으로 새롭게 작·편곡한 곡이다. 산조 선율과 관현악의 화성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자유로운 카덴자 부분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문정근 명무의 춤사위는 음악과 하나가 되어 우리 삶을 녹여낸다. 대금에 서정미, 아쟁에 황승주, 가야금에 백은선 단원이 함께한다.

다섯 번째 무대 창과 관현악 '수궁가 중 세상경계'는 지난해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위촉곡이다.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가 별주부에게 속아 넘어가 수궁으로 들어갔다가 꾀를 내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대목을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편곡한 곡이다. 소리에는 조통달 명창 무대에 올라 판소리의 풍성한 멋을 보여줄 예정이다.

여섯 번째 무대는 국악가요 '사노라면·희망가'로 국악인 박애리가 누구나 즐겨 부르는 가요인 '사노라면&희망가'를 새롭게 재해석해 국악관현악과 함께 희망 가득한 내일을 담아 노래를 선사한다.

공연의 마지막은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이 장식한다. '신난다, 신명난다, 신바람' 등 의미를 가진 '신모듬'은 민속음악 장단 특유의 역동성에 바탕을 둔 곡으로 느린 음악에서 점차 빠른 음악으로 변화하는 사물놀이의 장단 변화와 풍성한 가락으로 신명난 무대가 펼쳐진다. 사물놀이에는 도내 대표 타악연주단체 동남풍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흥과 신명을 돋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를 위해 무료로 진행되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 주말까지 열려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서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이 지난 5월부터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이 이번 주 종료한다.

지난 5월 3일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개막한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은 근대문학 희귀 초판본으로 알려진 1926년 작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비롯해 '만해 한용운 진영(眞影)', '조선불교유신론', '님의 침묵 금경' 등 만해기념관 유물과 함께 '천수천안', '지장탱화', '아미타삼존도' 등의 고려불교미술연구소 소장 불화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33점의 수준 높은 작품들로 채워져 문화 자산으로서의 불교 문화재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주말 전시 종료를 앞두고 관람객이 꾸준히 이어지며 수준 높은 불교문화 전시품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5월 가정의 달 부터 태권도원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백담에서 온 부처님을 비롯한 태권도원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며 "특히, 특별전이 이번 주말까지 열리는 만큼 수준 높은 불교 문화 관람의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담에서 온 부처님' 특별전은 6월 26일까지 태권도원 내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옥마을을 감싸는 물길, 전주천'

전주한옥마을역사관, 역사 · 문화적 가치 재조명 특별전 개최

전주한옥마을역사관에서 오는 8월 21일까지 전주천의 역사와 변화상을 소개하는 '한옥마을을 감싸는 물길, 전주천' 특별전이 열린다.

이 특별전은 조선시대 한시(漢詩)에 담긴 전주천의 풍경부터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전주천에 관한 역사와 이야기를 살피고, 전주천과 함께한 시민들의 흔적과 최명희의 소설 속 전주천의 모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전주십경(全州十景), 전주천을 따라 흐르다 △전주천의 다리들, 마을과 사람을 잇다 △산업화의 물결, 그리고 다시 찾은 전주천 △최명희의 소설 속 '소살소살' 흐르는 전주천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조선후기 추재(秋齋) 조수삼의 시에 담긴 전주천의 모습을 시작으로 천변을 따라 들어선 시장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다리들, 산업화 이후 오염된 전주천을 되살리기 위한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의 복원·정화활동, 전주천을 곁에 두고 살아온 최명희가 소설 속에 그린 전주천의 모습 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전주천 관련 고서적 및 고지도 △전주천 옛 다리 사진 △전주천 정화활동 사진 및 복원사업 자료 △소설가 최명희가 남긴 도서 등 22점의 전시물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한벽당과 전주천 풍경을 본뜬 부채 꾸미기 체험 코너도 마련돼 전시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글과 그림을 그려 가져갈 수 있다.

이 특별전은 한옥마을전시관 휴무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특별전시가 전주천이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주천을 따라 흐르는 전주시민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K애니 해외진출 기지개… 태일이 · 각질 낭보 속 계약 이어져

한국 애니메이션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로 불리는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콘진원의 지원을 받은 '태일이'와 '각질'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K-애니메이션의 진면모를 세계에 알렸다.

홍준표 감독의 애니메이션 '태일이'는 도전적인 장편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콩트르샹'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콘진원 '2021년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통해 융자 유치를 지원받았다.

문수진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각질'도 '졸업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각질'의 이번 수상은 '75회 칸 국제 영화제' 단편 경쟁부문에 국내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후보 진출했다는 소식에 이은 겹경사다. 각질 역시 콘진원 '2022년 독립애니메이션 유통지원 사업' 지원을 받았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기간 중 열린 '2022 안시 국제애니메이션필름마켓(MIFA)' 한국공동관에 참가한 업체들 역시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

MIFA는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기간 중 열리는 애니메이션 마켓으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면 오프라인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콘진원은 지난 14~17일까지 한국공동관을 운영했다.

국내 애니메이션사 로이비쥬얼은 우크라이나의 배급사 '엘엘디 너드 에이전시'와 '로보카폴리'의 상품화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유럽지사를 통해 전쟁으로 침체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애니메이션·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적극 재개하겠다는 의지다.

핑고엔터테인먼트는 '조디악 키즈 앤 패밀리 프랑스'와 '샤샤&마일로'에 대한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고품질 컴퓨터그래픽이미지(CGI) 액션 애니메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안시 영화제에는 전 세계에서 300여 명의 바이어와 5500여 명의 애니메이션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국공동관은 '신한류를 이끌 K-애니메이션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운영됐다. 참가기업들은 4일간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과 120여 건의 상담과 네트워킹 파티를 진행하며, 현지에서 직접 K-애니메이션에 대한 반응을 확인했다.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에 대한 투자와 배급, 공동제작 등에 의향이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 신규·완성작에 대한 피칭도 진행했다.

/뉴시스